

2011 연구보고서

‘새로운 복음화’ 개념 연구 및 사목적 모색



진주교 서울대교구 시목국

‘새로운 복음화’

개념 연구 및 사목적 모색

연구책임자 : 홍근표 바오로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

객원연구자 : 강영옥 루치아(가톨릭대 강사)

자문위원 :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박정우 후고 신부

전영준 바오로 신부

최승정 베네딕도 신부

박준양 세례자 요한 신부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

양해룡 사도요한 신부

김연범 안토니오 신부

이정준 식스토 신부



ARCHDIOCESE OF SEOUL

추 천 사

서울대교구는 2011년부터 중장기 계획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교구 사목정책의 중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구의 사목정책들은 ‘새로운 복음화’의 방향과 맥락에 따라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새로운 복음화’가 지향하는 본질적 내용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지향하는 ‘복음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복음화’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적으로 시선을 돌려 교회의 자기 쇄신을 도모하고, 동시에 교회 외적으로 시선을 돌려 세상을 복음화하려는 양방향성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시대적 변화와 도전 앞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식별과정을 거쳐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새로운 복음화’에 따른 사목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복음화’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는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개념 연구와 사목적 모색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새로운 복음화’라는 용어가 지닌 의미와 역사적 배경 및 사목적 관련성 등을 요약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목자와 평신도들이 ‘새로운 복음화’의 맥락에 따라 사목정책을 세우고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보고서가 기초 자료로 쓰이길 희망합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추기경님과 주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수고와 노력으로 임해주신 홍근표 바오로 신부님과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할애해 주신 자문위원 신부님들께, 또한 강영옥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 10월
사목국장 민병덕 비오 신부

발 간 사

2011년 교구장님께서서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쇄신되고 변화되며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큰 물결과 함께 성장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 종교적 무관심 등이 만연해 있는 사회 속에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가치관들이 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침으로써 교회 내에도 입교자 감소, 냉담 행방불명자 증가, 청소년 계층의 외면, 수도 성소의 감소 등의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복음화’는 사실 열정이 시들어가고 있는 유럽 교회와, 국교는 가톨릭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이 온전히 정착하지 못한 라틴아메리카 교회를 우선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 한국 교회 역시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어야 할 시점임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복음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복음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공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교구에서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교서들을 발표하였는데, 새복음화, 재복음화, 사회복음화, 새로운 복음화 등 다양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새로운 복음화’의 본연의 의미가 올바르게 정의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목국에서는 전문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신 신부님들과 함께 새로운 복음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와 그 실현 방법에 대하여 수차례 회의를 하였고 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교구 사목교서에 맞춰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염수정 총대리 주교님과 민병덕 사목국장 신부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모든 작업을 정리하고 완성하는 데 큰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객원연구자 강영옥 루치아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차례 모임에서 열띤 토론과 의견을 내 주신 모든 자문위원 신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0월
홍근표 바오로 신부

목 차

연구요약	1
제1장. 서론	7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방법	
제2장. ‘새로운 복음화’ 개념 연구	10
1. ‘새로운 복음화’ 개념 형성 배경	10
2. ‘새로운 복음화’의 맥락	11
3.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	16
1) ‘새로운 복음화’는 ‘새 복음화’의 의미와 다르다	16
2) ‘새로운 복음화’는 ‘하느님 선교’에 뿌리를 둔다	17
3) ‘새로운 복음화’의 내용은 ‘복음화’이다	19
4. 왜 ‘새로운 복음화’인가?	23
1) 문화 부문	25
2) 사회 부문	25
3) 사회 커뮤니케이션 부문	25
4) 경제 부문	25
5) 과학과 기술연구 부문	25
6) 정치 부문	26
5. ‘새로운 복음화’의 구성요소들	26
1) 새로운 열정	27
2) 새로운 방법	29
3) 새로운 표현	30
소결	31

제3장. ‘새로운 복음화’의 과제와 사목적 제안	35
1. ‘새로운 복음화’의 본질	35
2. ‘새로운 복음화’의 방향	36
1) 2020년을 향한 ‘새로운 복음화’	36
2) ‘새로운 복음화’의 방법	37
3. ‘새로운 복음화’의 과제	39
1) 새로운 사고방식	39
가. 패러다임의 변화	39
나. 21세기 사회 변화	40
다. 21세기 교회 변화	40
라. 21세기 한국 사회 변화	41
2) 담대한 행동 양식	43
가. 소공동체 사목모델	43
나. 사회복음화 활동	47
3) 식별하는 능력	51
4.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준거와 사목적 제안	52
1) 새로운 복음화의 준거 제안	53
2) 2003년 교구 시노드에 입각한 사목적 제안	54
제4장. 결론	57
참고문헌	61

연구요약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새로운 복음화”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서울대교구의 사목 방향과 전망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보고서 발간)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1) ‘새로운 복음화’ 개념 연구

서울대교구는 2020년을 전망하면서 2011년부터 중장기 계획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교구 사목정책의 주제로 삼았다. 그런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제안하셨던 ‘새로운 복음화’의 개념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새로운 복음화’는 ‘선교’, ‘복음화’, ‘새 복음화’, ‘재복음화’, ‘사회 복음화’라는 용어와 의미상 구별없이 사용되는가 하면, 또 다른 맥락에서는 별도의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에 교구의 사목정책을 구체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먼저 ‘새로운 복음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전망(vision)을 공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는 교구의 사목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작업으로서 ‘새로운 복음화’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2) 새로운 복음화에 관한 세계교회의 흐름

지난 수십 년간 ‘새로운 복음화’(new evangelization)라는 용어가 교계 안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대륙별 주교대의원회의를 중심으로 ‘새로운 복음화’는 각 지역교회가 현대 세계의 선교 사명을 숙고하는데 있어서 중심 주제로서 부각되어 왔다. ‘새로운 복음화’라는 개념 속에 담기는 구체적 내용은 각 대륙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복음화’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체적 맥락 안에서 담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세계교회의 흐름 안에서 ‘새로운 복음화’가 지닌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3) 한국 교회와 ‘새로운 복음화’

한국 교회는 근세기에 선교가 이루어진 비교적 역사가 짧은 교회에 속한다. 선교 227주년을 기념하는 한국 교회는 그동안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왔다. 제3세계의 가난하고 미약한 작은 교회에서 출발하였으나,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 발전과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그러나 새 천년기로 접어들면서 한국 교회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입교자 감소, 냉담 행방불명자 증가, 청소년 계층의 외면, 수도 성소의 감소 등, 오늘날 성장을 낙관할 수 없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 세속화의 물결을 타고 한국 교회도 성장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 종교적 무관심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위기에 직면하여 어떻게 복음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이 ‘새로운 복음화’의 과제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새로운 복음화 맥락에서 한국 교회의 현황을 바라보고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4) ‘새로운 복음화’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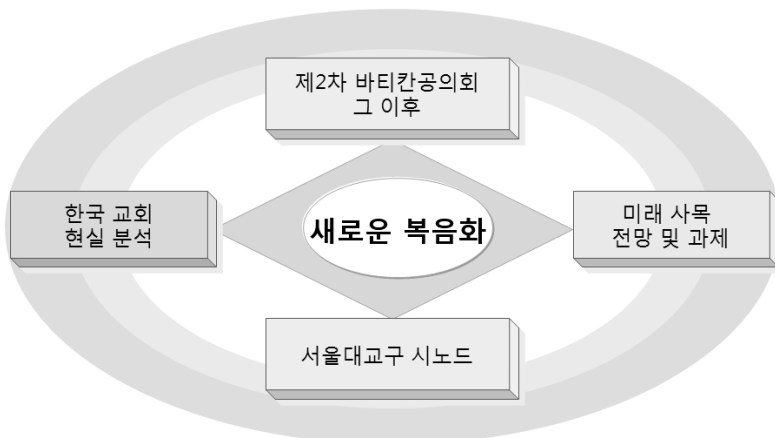
교회는 시대의 징표들을 읽고 그 징표들을 복음의 빛으로 해석할 의무를 지닌다. 시대의 징표를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곧 복음화를 위한 식별의 과정을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식별의 과정은 사회·문화적 분석과 신학적 해석을 포괄한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복음화’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은 ‘새로운 복음화’의 과제에 속한다. 한국 교회가 ‘새로운 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반영하여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현안문제와 과제들

을 사목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지 사목적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그러한 ‘새로운 복음화’의 맥락에 따른 교구 사목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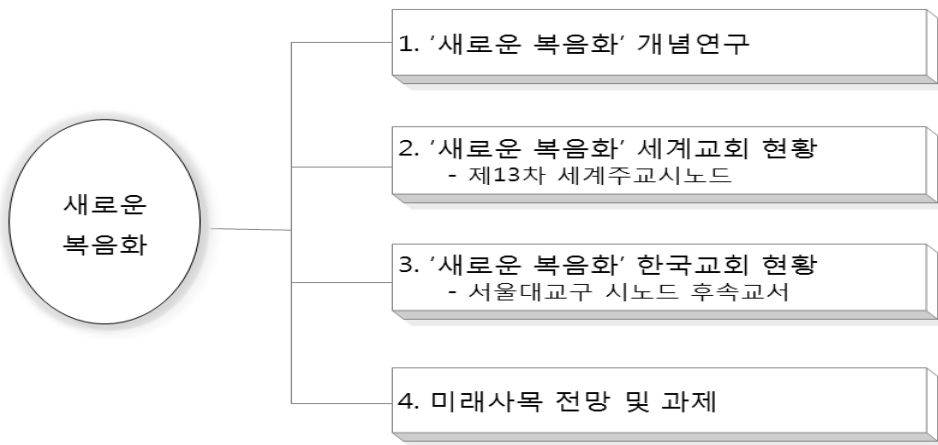
5) 사목정책에 대한 비전

‘새로운 복음화’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이어받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근원으로부터 이해하고 21세기 교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았다. 공의회 정신은 ‘현대 사회의 흐름 안에 시대의 징표를 읽어내고 교회가 쇄신되고 세상을 복음화해야 한다’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교회의 현대화(Aggiornamento)와 일치”를 지향하는 공의회 정신을 한국 교회는 어떻게 실현시켜 왔는지 ‘새로운 복음화’의 맥락에서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가야 할지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이다. 서울대교구는 교구 시노드(2003)를 통해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이어받은 한국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미 모색한 바 있다.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교서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에 들어 있는 실천적 사목과제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복음화’의 맥락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사목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살펴본다.

3. 연구과제 개념도



4. 연구과제 내용



5. 연구 방법

－문헌연구

- ☐ 새로운 복음화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 교회문헌, 학술논문, 정기간행물 자료 수집 및 분석
- 외국 사목자료 및 타교구 자료 수집 및 분석
- 단행본, 연구논문, Working Paper, 기사자료 수집 및 분석
-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연구진행

1) 정기회의

- 연구추진 단계별로 연구 방향과 연구 내용에 관해 책임연구자와 객원연구자가 매주 수요일 연구회의를 실시함
- 연구 중간보고 : 연구기간 중간시점에서 종합적 연구결과 점검

2) 자문회의

-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실시
- 총 5회 실시

7. 연구일정 : 2011. 3. 2~8. 31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3	4	5	6	7	8	
문헌자료 수집 및 정리	○	○	○				
정기회의 및 점검	○	○	○	○	○	○	
중간보고			○		○		
연구결과 종합					○		
보고서 집필 및 수정 보완				○	○	○	
연구보고서 인쇄						○	

8.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새로운 복음화’ 개념 연구

제3장. ‘새로운 복음화’에 입각한 사목정책 방향

제4장. 결론

9.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 본 연구보고서는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복음화’에 따른 사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제시하는 ‘복음화’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제안하는 ‘새로운 복음화’가 서로 이어지는 맥락 안에서 서울대교구가 지향하는 ‘새로운 복음화’ 사목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찾을 수 있다.
- 본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서울대교구 사목정책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논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실천해 나갈 사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복음화’의 현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교회는 시대의 징표들을 읽고 그 징표들을 복음의 빛으로 해석할 의무를 지닌다(「사목헌장」4항). 시대의 징표를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곧 복음화를 위한 식별의 과정을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식별의 과정은 사회·문화적 분석과 신학적 해석을 포괄한다.

한국 교회는 제3세계의 가난하고 미약한 작은 교회에서 출발하여 그동안 비약적 발전과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새 천년기로 접어들면서 입교자 감소, 냉담 행방불명자 증가, 청소년 계층의 외면, 수도 성소 감소 등의 현상 등으로 말미암아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 세속화의 물결을 타고 한국 교회는 성장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 종교적 무관심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교회 내에 복음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지배적인 경우도 종종 지적된다.

한국 교회는 다양한 현안문제들과 과제들을 사목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지 그 방안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모색할 시점에 이르렀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복음화’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은 ‘새로운 복음화’의 과제에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 그러한 ‘새로운 복음화’의 맥락에 따른 서울대교구 사목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보고 새롭게 설정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새로운 복음화(new evangelization)’ 개념은 1980년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으며, 2000년 대희년을 기점으로 전 교계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나타내는 핵심 개념으로 부상하였다. 오늘날 한국 교회

에서도 ‘새로운 복음화’는 각 교구마다 사목정책의 핵심 단어로 채택될 만큼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일례로 2011년 각 교구 사목교서를 보면 대부분의 교서에서 ‘새로운 복음화’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새로운 복음화’라는 표현이 교계 안에 널리 퍼져 사용되고 있지만,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여서 의미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2012년)를 준비하는 「의제 개요」에서도 ‘새로운 복음화’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열린 개념이라고 말하면서 “복음화의 의미가 늘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 아니며, 교회의 사목적 성찰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새로운 표현”이라고 말한다(「의제 개요」5항). 따라서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신학적 토론과 사목적 성찰은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구의 사목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 먼저 정의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복음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사목정책의 방향이나 전망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는 교회문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복음화’의 기본 의미와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과 시대적 맥락 안에서 ‘새로운 복음화’의 개념을 어떻게 천착시킬 수 있을지에 관해 숙고할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복음화에 따른 사목정책 대안들의 기본 줄기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새로운 복음화’의 측면에서 볼 때, 2003년 교구 시노드를 통하여 이미 여러 가지 좋은 사목정책들이 제안되어 있으나,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정책들이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2003년 발간된 시노드 최종문서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를 참조하여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사목정책의 방향과 전망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노드 후속교서가 다루는 7개 영역(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청소년·청년, 선교·신앙교육, 교회운영, 사회복음화) 가운데 특히 ‘선교·신앙교육’과 ‘교회운영’, ‘사회복음화’ 영역이 ‘새로운 복음화’의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세 영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사목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자료에 기초하여 새로운 복음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 교회문헌, 학술논문, 정기간행물 자료 수집 및 분석
- 외국 사목자료 및 타교구 자료 수집 및 분석
- 단행본, 연구논문, Working Paper, 기사자료 수집 및 분석
-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 및 분석

2) 정기 연구회의

- 연구추진 단계별로 연구 방향과 연구 내용에 관해 책임연구자와 객원연구자가 매주 수요일에 만나 연구회의를 가졌다.
- 현재까지 총 13회 실시
- 연구 중간보고 : 2011년 7월 7-8일에 걸쳐 2차례 이루어졌다.

3) 자문위원 회의

-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 ‘새로운 복음화’ 내용과 교구 미래사목의 방향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 총 5회 실시

제2장. ‘새로운 복음화’ 개념 연구

1. ‘새로운 복음화’ 개념 형성 배경

‘새로운 복음화’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1979년 폴란드를 사도 방문하였을 때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이다.¹⁾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히 강조된 개념이 아니었고, 장차 그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이 용어는 되풀이 사용되었고, 특히 라틴아메리카 교회에 대한 교황의 가르침 안에서 새로운 선교와 복음화의 노력을 일깨우고 쇄신하는 수단으로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회가 나아갈 길

새로운
복음화

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폴란드 모길라의 거룩한 십자가 순례지에서 행한 미사 강론, 1979. 6. 9., 1항 참조,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영문판, 1979. 7. 16., p. 11, AAS 71 (1979) 865 :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 그곳이 사랑을 통한 인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닿은 곳이라는 표징도 일어납니다. …… 새로운 나무 십자가가 새천년을 경축하던 바로 그 순간,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새천년이라는 문턱에서, 곧 이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삶의 조건에서 복음이 새로이 선포되었다는 표징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실제로는 늘 똑같은 것이지만, 마치 새롭게 선포된 것처럼 시작되었습니다.”

“500년에 걸친 복음화를 기념하는 일은, 여러분이 주교로서 자기 사제들과 신자들과 함께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때, 그 충만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분명 이 사명은 **재복음화가 아니라,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사명**입니다. 곧 **그 열정과 방식, 그 표현에서 새로운 것**입니다.”²⁾

☑ 새로운 복음화는 단순한 재복음화가 아니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복음화이다.

제19차 라틴아메리카 주교 총회(1983년)를 통해 공식적인 개념으로 등장한 ‘새로운 복음화’는 여기서 ‘재복음화’와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이미 복음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반복하여 복음화를 시도하는 재복음화와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교회가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시대적 상황과 조건들을 숙고하면서 복음화의 길을 새롭게 모색한다는 면에서 새롭다는 뜻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유사 종교의 출현이라는 “새로운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직면하여 용감하게 새 길을 내는 것”이 ‘새로운 복음화’라는 개념 안에 담겨진다.



한국의 현실에서 ‘새로운 복음화’의 과제는 라틴아메리카의 맥락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그 맥락이 어떻게 다르며 새로운 복음화의 과제가 무엇일지에 관해 식별의 과정이 필요하다.

2. ‘새로운 복음화’의 맥락

‘새로운 복음화’ 주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반포한 여러 교회 문헌들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1988년에 반포된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에서는 “2천년대의 ‘새로운 복음화’의 때가 왔다”고 언급되고, 이어 1990년 선교대헌장이라고도 평가되는 회칙 「교회의 선교사명」(Redemptoris missio)에서는 “현시점이 바로 ‘새로운 복음화’에 투신할 적기”

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제19차 라틴아메리카 주교 총회 강론(1983. 3. 9) 3항,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영문판, 1983. 4. 18., p. 9, AAS 75(1983) 778.

라고 강조된다. 이어서 1994년 11월 10일에 반포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대희년 교서 「제삼천년기」(Tertio millennio adveniente)는 새로운 복음화와 복음화 그리고 선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000년의 접근을 위한 준비의 일부분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 시작된 일련의 시노드들, 즉 세계주교대의원회와 더불어 대륙, 지역, 국가 그리고 교구의 시노드들입니다. 이들 모두의 기저가 되는 주제는 복음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새로운 복음화입니다.”(21항)

여기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천명된 교회의 가르침들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고,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뒤를 잇는 교황들이 반포한 공식적인 가르침과 후속 시노드들은 ‘복음화’를 구체화하는 기능적 요소들로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화’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이후 개최된 세계 주교시노드, 대륙별 시노드, 지역 시노드, 교구 시노드들은 복음화를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표현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볼 수 있다.

〈표 1〉 역대 세계주교대의원회의
(※는 새로운 복음화 주제와 직접 관련된 주교대의원회의를 표시)

	회 의	기 간	주 제	결 과	비고
1	제1차 정기총회	1967.9.25-10.29	가톨릭 신앙의 보전과 강화	국제신학위원회 설치 (1969)	
2	제1차 임시총회	1969.9.11-10.28	교황과 주교회의들의 협력		
3	제2차 정기총회	1971.9.30-11.6	직무 사제직과 세계 정의		
4	제3차 정기총회	1974.9.27-10.26	현대 세계에서의 복음 선교	「현대의 복음 선교」 (1975)	※
5	제4차 정기총회	1977.9.30-10.29	우리 시대의 교리 교육	「현대의 교리 교육」 (1979)	※
6	네덜란드 주교시노드 특별회의	1980.1.14-31	네덜란드 사목상황		
7	제5차 정기총회	1980.9.26-10.25	그리스도인 가정	「가정 공동체」(1981)	

	회 의	기 간	주 제	결 과	비고
8	제6차 정기총회	1983.9.29-10.29	교회 사명에서의 참회와 화해	「화해와 참회」(1984)	
9	제2차 임시총회	1985.11.24-12.8	제2차 바티칸공의회 폐막 20주년		
10	제7차 정기총회	1987.10.1-30	교회와 세상에서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	「평신도 그리스도인」(1988)	*
11	제8차 정기총회	1990.9.30-10.28	현대 상황에서 사제 양성	「현대의 사제 양성」(1992)	
12	유럽 주교 시노드 특별 회의(1차)	1991.11.28-12.14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13	아프리카 주교시노드 특별회의	1994.4.10-5.8	아프리카 교회와 2000년을 향한 복음화 사명	「아프리카 교회」(1995)	*
14	제9차 정기총회	1994.10.2-29	교회와 세상에서의 봉헌생활과 그 역할	「봉헌생활」(1996)	
15	레바논 주교시노드 특별회의	1995.11.26-12.14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 그분의 성령으로 새로워진 우리는 연대하여 그분의 사랑을 증언한다		
16	아메리카 주교 시노드 특별회의	1997.11.26-12.12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 아메리카에서 회개와 친교와 연대의 길	「아메리카 교회」(1999)	*
17	아시아 주교시노드 특별회의	1998.4.19-5.14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시아에서의 그분 사랑과 봉사의 사명 : 그들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기 위하여	「아시아 교회」(1999)	*
18	오세아니아 주교시노드 특별회의	1998.11.22-12.12	예수 그리스도와 오세아니아 백성들 :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의 진리를 말하고 그분의 생명을 살기	「오세아니아 교회」(2001)	*
19	유럽 주교 시노드 특별회의(2차)	1999.10.1-23	당신 교회에 살아 계시며 유럽의 희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럽 교회」(2003)	*
20	제10차 정기총회	2001.9.30-10.27	세상의 희망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종인 주교	「양떼의 목자」(2003)	
21	제11차 정기총회	2005.10.2-23	교회 생활과 사명의 원천이자 정점인 성찬례	「사랑의 성사」(2007)	
22	제12차 정기총회	2008.10.5-26	교회 생활과 사명에서 하느님 말씀	「주님의 말씀」(2011)	*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륙별 주교대의원회의에서 ‘새로운 복음화’는 각 지역 교회가 현대 세계의 선교 사명을 숙고하는 데 있어서 중심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복음화’라는 개념 속에 담기는 구체적 내용들은 각 대륙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복음화’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체적 맥락 안에서 담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복음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어떤 표현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는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복음화’ 개념은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며 거행된 대륙별 주교대의원회의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당시에는 지역 교회의 사목적 사고에서 받아들여진 표현이었으나, 점차 ‘새로운 복음화’는 지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영적 활성화를 의미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린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생활에 영향을 주는 변화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신앙의 기억을 다시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에 차서 신나게 선포하는 새로운 책임감과 힘을 갖는 여정의 출발점으로 ‘새로운 복음화’를 이해한다는 것을 반영한다.³⁾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관심은 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게 계속 이어진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0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강론에서 ‘새로운 복음화’를 ‘다시 제안한다’(repropose)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 즉, ‘새로운 복음화’란 복음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복음화를 새롭게 다시 충실히 해보자는 제안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다시금 현실화하고 생활화하자는 제안으로 다가온다. 같은 맥락에서 내년 제 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주제도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The New Evangelization for the Transmission of the Christian Faith)로 선정되었다.

3)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교황 권고 「아프리카 교회」(*Ecclesia in Africa*), 57.63항, AAS 88(1999) 35-36.39-40 참조 ;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교황 권고 「아메리카 교회」(*Ecclesia in America*), 6.66항, AAS 91(1999) 10-11.56 ;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교황 권고 「아시아 교회」(*Ecclesia in Asia*), 2항, AAS 92(2000) 450-451 ;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교황 권고 「오세아니아 교회」(*Ecclesia in Oceania*), 18항, AAS 94(2002) 386-389 참조.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전 세계의 많은 주교회의가 ‘신앙의 전수’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기억하는 동시에 현재 세속화 등의 영향으로 특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교회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요청이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임을 확인하였다.⁴⁾ 2012년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로마에서 열릴 예정인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작년에 신설된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the Promoting the New Evangelization)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 기구의 신설은 2010년 9월 21일 교황 교서 「언제나 어디서나」(Ubicumque et Semper)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 이 교서에 따르면, **복음화의 사명은 교회의 본성 자체**인데, 최근 우리 시대에 이르러 많은 장애를 경험하고, 특히 세속화의 영향으로 종국에는 신앙 포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자 당면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교서는 ‘새로운 복음화’가 특별히 오래전에 설립된 교회들과 관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새로운 평의회의 규범 제2조에서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는 교황청의 다른 부서와 기구들과 협력하며, 각 기구의 관할권은 존중되지만, 특별히 세속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지역의 개별 교회들을 위해 활동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복음화’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이어받는 복음화의 현실적 노력으로서 교계 안에 사목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복음화’가 이처럼 교회 안에 중심 개념으로 부상하게 되었는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나타내는 핵심 개념으로 ‘**복음화**’가 수십 년간 사목의 중심 주제였기 때문이다. ‘복음화’와 ‘새로운 복음화’ 사이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실제로 ‘복음화’와 ‘새로운 복음화’ 사이의 구별이 모호한 가운데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한국가톨릭대사전』에서 ‘새로운 복음화’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새로운 복음화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며,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내적 삶의 변화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더욱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또한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반대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 사상, 생활방식 등을 복음의 힘으로 바로잡는 것이다”⁵⁾

4)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3차 정기총회 「의제 개요」 1항 참조.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라기보다는 ‘복음화’의 내용에 더 가깝다. ‘복음화’와 ‘새로운 복음화’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사목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논하다 보면, 구체적인 사목정책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올해 각 교구마다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사목전망과 정책을 많이 논하지만, ‘새로운 복음화’에 담긴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목정책도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사목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새로운 복음화’의 개념 연구를 우선적인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3.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

1) ‘새로운 복음화’는 ‘새 복음화’의 의미와 다르다.

‘새로운 복음화’가 처음 한국 교회에 알려졌을 때, 수식어 ‘새로운’의 한국어 사용 때문에 ‘새’ 신자를 입교시킨다는 의미로 축소 전달되는 경향이 있었다. 인천교구 시노드에서는 복음화의 의미를 ‘새 복음화, 재복음화, 사회 복음화’로 구분하였는데, ‘새 복음화’는 새로운 신자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재복음화’는 교회 구성원들의 신앙을 성숙되게 하는 것이며, ‘사회 복음화’는 세상의 가치관을 복음의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여기서 ‘새 복음화’가 새 신자 입교라는 직접 선교의 개념으로 사용되었기에 일반적으로 ‘새 신자 늘리기’라는 교세 양적 증가의 의미로 통용되었다. 따라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강조해 온 ‘새로운 복음화’라는 표현이 한국 교회에 소개되었을 때 적잖은 의미 혼란이 있었다.

☑ 한국어의 ‘새 복음화’는 ‘선교’라는 개념과 상통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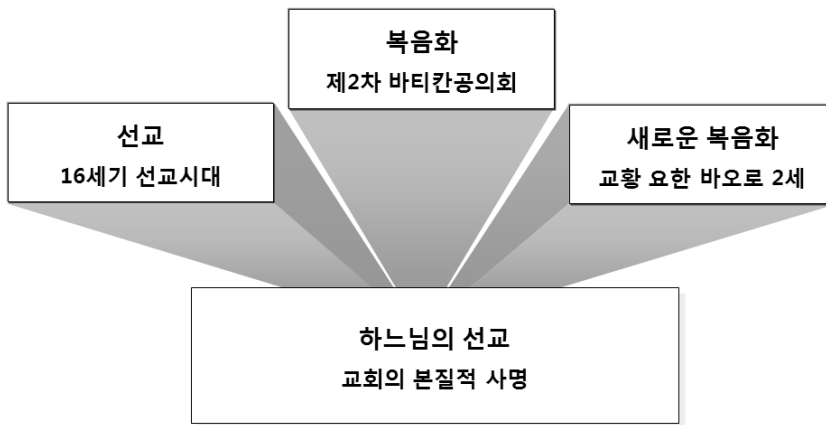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접 선교를 뜻한다.

5) 김준철, “복음화”, 『한국가톨릭대사전』 5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3515쪽.

2) ‘새로운 복음화’는 교회의 본질인 ‘하느님 선교’에 뿌리를 둔다.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교’-‘복음화’-‘새로운 복음화’로 변천해가는 용어의 흐름을 파악해야만 한다. 전통적인 ‘선교’ 개념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통해 ‘복음화’의 개념으로 대치되었고, ‘복음화’는 1980년대 이후 시대적 흐름 안에서 ‘새로운 복음화’의 개념으로 변천하였다.

<표 2> ‘선교’-‘복음화’-‘복음화’의 개념도



☑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며 뿌리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원으로 삼는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본질이며 본성상 선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순례하는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이다.”⁶⁾

선교(missio)는 성서 안에서 ‘파견하다’(mittere)에 기원을 둔 개념으로서 파견되고, 알리고, 교회를 건설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적인 신적 친교를 나눔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요한 3,16-17).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육화이며 선교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 선교라는 개념 안에는 하느님의 사랑을 통한 구원의 의미가 실질적 내용으로 담겨 있다.

6)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Ad Gentes), 2항.

선교는 그리스도인이 만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및 내적 쇄신과 변화, 하느님과의 친교 및 이웃과의 친교, 나눔 등의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교회는 하느님의 이 계시를 선포하고 증언하며 하느님의 흠어진 백성들을 한데 모아 자신의 기원으로 되돌아가고 이를 되살리기 때문에 선교적이다.⁷⁾

선교가 지닌 본래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것 “같이~그렇게”(kathos - kago)⁸⁾ 선교사들이 파견되고, 다가오는 하느님 나라를 안내하는 일이다. 선교사는 예수님의 선례를 따라 비구원의 세계에서 횡행하는 온갖 궁핍, 불안, 폭력을 제거하고 가난과 고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⁹⁾

이와 같은 본래적 의미의 ‘선교’ 개념이 16세기 이후 식민주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교회 역사 안에서 왜곡된 부분이 생겨났다. 당시 선교는 식민지 확장을 꾀하는 제국주의와 결합되어 유럽의 문화를 비유럽권역에 이식하는 일과 동일시되었다. 그리하여 선교의 의미가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그리스도교파에 속하게 하는 양적인 확장을 뜻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선교 활동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고방식에 바탕을 두고 비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려는 일방적인 자세를 취한다. 여기에는 주-객 도식이 전제되어 있다. 즉, 복음의 진리를 보유한 교회가 주체가 되고 비그리스도인을 객체, 즉 대상으로 삼아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이며 서구 교회의 우월한 자세가 견지된다. 근세 이후 서구 문화의 일방적인 수출 형태를 지녔던 그러한 선교 방식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통해 반성되었다. 그리하여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복음화’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게 된다.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왜곡된 ‘선교’ 개념보다 오히려 ‘복음화’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였기 때문이다.

7) 「의안 개요」 2항.

8) 요한 17,18 ; 20,21.

9) 루카 4,18-22 참조.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자의교서 「언제나 어디서나」(Ubi cumque et Semper, 2010)에서 ‘새로운 복음화’의 원천적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다. 최초이며 최고의 복음 선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사명이다. ‘복음화’와 ‘새로운 복음화’는 교회의 이러한 본질적 사명을 실현하는 본래적 의미의 ‘선교’로부터 파생된 개념이다.

3) ‘새로운 복음화’의 내용(Contents)은 ‘복음화’이다

‘복음화’라는 용어는 1960년대에 그리스도 교계 안에 등장하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에 공식적으로 수록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¹⁰⁾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들을 보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선교’ 용어 대신 ‘복음화’라는 용어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인 「선교교령」은 전 교회를 선교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복음화의 과업(*opus evangelizationis*)을 하느님 백성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전 교회는 선교적이며, **복음화**의 과업(*opus evangelizations*)은 하느님 백성의 근본적 임무이므로 성스러운 교회회의는 모든 사람을 내적 깊은 쇄신으로 부르는 바이다.”¹¹⁾

‘선교’와 ‘복음화’라는 이중적 역동성 안에서 교회는 선포자의 능동적 역할만이 아니라 청중과 제자의 수용적 역할도 수행한다. 그리하여 교회는 복음 선포자로서 가장 먼저 그 자신을 복음화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다.¹²⁾

교회는 더 이상 선교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점유하지 못한다. 선교의 주체는 하느님이시다. 교회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파

10) 심상태 신부는 한글 번역 과정에서 *evangelizatio*가 ‘복음화’로 번역되지 않고, ‘복음 선포’ 혹은 ‘선교 활동’으로 번역되어 복음화의 의미를 적절하게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선교교령」 한글번역본에서 *opus evangelizations*는 “복음 선포의 과업”으로 번역되어 있다. 심상태, 『제삼천년기의 ‘새 복음화’와 ‘선교’』; 심상태, 『교회의 복음화』,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편, 『김병상신부화갑기념논문집, 의로운 사회와 교회』, 가톨릭출판사, 1992, 419-444쪽 참조.

11) 「선교교령」 53항.

12) 「현대의 복음선교」 15항 참조.

견과 성령의 파견에서 자신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교회는 하느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증언하며 하느님 백성들을 한데 모아 자신의 기원으로 되돌아가고 이를 되살려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선교’(missio)이며, 교회는 먼저 스스로를 복음화해야 한다. 그러한 교회의 자기복음화 과정과 더불어 교회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여 그들을 성사생활에 참여하도록 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복음화’ 정의

“교회는 복음 선포자이지만 교회 자체가 복음화 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 생활과 친교가 가능한 희망의 공동체, 형제적 사랑의 공동체라면 그러한 공동체는 믿고 바라야 할 것과 사랑의 새 계명을 계속 들어야 할 것입니다. … 교회로서 참신한 활력과 힘을 보유하려면 교회 자신이 언제나 복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표명하고(「선교 교령」, 5항), 1974년의 시노두스에서 재확인된 바이지만 **교회가 전 세계를 참으로 복음화하려면 끊임없는 회개와 쇄신(刷新)으로 교회 자체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¹³⁾

‘복음화’ 의미 1 :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복음화해야 한다.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 1975)와 「현대의 교리 교육」(Catechesi Tradendae, 1979),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8)에서 교회의 쇄신으로서의 복음화 의미가 거듭해서 밝혀지며, 그 내용은 ‘새로운 복음화’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어진다.

이후 교회문헌들은 ‘복음화’라는 개념으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설명한다. ‘복음화’(evangelizatio) 개념은 1974년 10월, “현대 세계의 복음화”라는 주제로 로마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주교대의원회의를 기점으로 교회의 본질

13) 같은 교서, 15항.

적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공식적인 자리매김하게 된다. 1975년 12월 8일자로 반포된 교황 바오로 6세의 교서 「현대의 복음선교」는 복음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¹⁴⁾

“교회로서는 복음화의 기쁜 소식을 인류의 모든 계층에까지 전해주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묵시 21,5 ; 2고린 5,17)라고 한 것과 같이 그 힘으로 인류를 내부로부터 변혁시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회로서 복음화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다 넓은 지역에서 혹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계획에 배반되는 인간의 판단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방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역전(逆轉)시키고 바로잡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¹⁵⁾

‘복음화’ 의미 2 :

우리의 가치관, 판단기준, 사상, 생활방식 등 삶의 실천과 관련된 모든 영역이 복음의 기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복음화’ 개념은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만민선교를 포함하여 그 의미의 영역을 더욱 넓혀간다. 즉, 복음화는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맞도록 변화시켜 시정하는 일련의 과정들로 나타난다. 세상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교의 가치기준과 판단과 실천이 요구된다.

“복음화는 여러 가지 요소로 성립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러한 요소들이란 인류의 쇄신, 복음적 생활의 증거, 명백한 교리전달, 마음의 귀의, 공동체에 대한 참가, 성사배령(Acceptio Signorum), 사도직 활동 등이며, 이 모두는 서로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호보완적(補完的)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관계 하에서 각 요소를 고찰해야 합니다. 이번 시노두스의 공적은 이 요소를 대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조화있게 생각하여 교회가 해야 할 복음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입니다.”¹⁶⁾

14) 교황 바오로 6세 교서, 「현대의 복음선교」(*Evangelii Nuntiandi*), 이종흥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7 참조.

15) 같은 교서, 18-19항.

‘복음화’ 의미 3 :

삶의 증거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교회현장」에서 복음화는 복음선포뿐만 아니라 복음의 정신을 체현한 삶의 모습임이 강조된다. 즉, 가르침의 차원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적 차원이 강조된다.

“이와 같은 복음화, 즉 **생활의 증거와 말로써 표현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세속의 공통 조건 하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과 특수한 효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복음화’는 교회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속에서 ‘시대의 징표’들 안에서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새롭게 체험함으로써 동시대인들로 하여금 복음과 일상생활 사이에서 새로운 창조적 통합을 이루도록 이끄는 것을 말한다. ‘복음화’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인간과 세계를 변혁시켜야 할 교회의 사명과 활동 전체를 말한다. 따라서 ‘복음화’는 그리스도 복음의 힘으로 인간을 내적으로 쇄신시켜 ‘복음적 생활’로 인도하는 활동이며, 이 ‘복음적 생활’을 통해서 이룩되는 ‘하느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인류의 쇄신’을 말한다.

이상으로 ‘복음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 ‘복음화’는 말씀의 선포와 삶의 증거이다.
- 2) 복음화는 복음의 가치기준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 3)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복음화해야 한다.

‘복음화’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인간과 세계를 변혁시켜야 할 교회의 사명과 활동 전체를 말한다. 복음화는 복음을 비신자들에게 선포하고 교리를 가르쳐 세례를 베푸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생활화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16) 같은 교서, 24항.

회개와 쉼을 통한 교회의 ‘자기복음화’를 전제로 한다. 그리스도 복음의 힘으로 인간을 내적으로 쉼시켜 ‘복음적 생활’로 인도하는 활동이 복음화 활동이며, 이 ‘복음적 생활’을 통해서 이룩되는 ‘하느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인류의 쉼’이 ‘복음화’가 본래 뜻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교회의 본질적 내용이 이처럼 ‘복음화’ 속에 담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새로운 복음화’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는가?

4. 왜 ‘새로운 복음화’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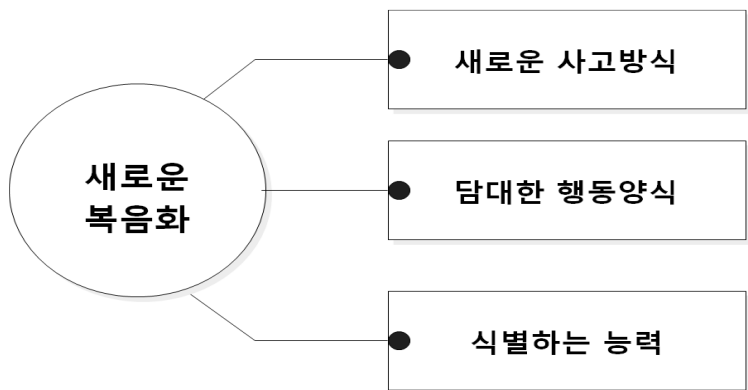
복음화가 담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그대로 ‘새로운 복음화’의 본질적 내용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복음화’가 왜 ‘새로운 복음화’의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새 천년기를 지나 21세기로 접어들수록 복음화의 과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에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걸쳐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들은 인간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때로는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금융-경제 위기의 경우처럼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도 나타났다. 따라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살도록 부름받은 교회는 새로운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맞서 용감하게 새 길을 내야 할”¹⁷⁾ 과제를 안고 있다.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이러한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각 대륙별 지역교회에게 「의안 개요」를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오늘날 새로운 시대적 도전에 직면하여 그리스도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각 대륙별, 지역교회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의안 개요」는 왜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한지 다음과 같이 말해준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식별의 노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들 속에 하느님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이러한 분야들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며 그 안에서 직접 하느님을 증언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새로운 복음화’를 정의하자면, 이러한 시대 변화를 볼 수 있는 사고방식이고, 담대한 행동양식이며, 그리스도교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상황들을 읽고 해석하는 법을 아는 능력이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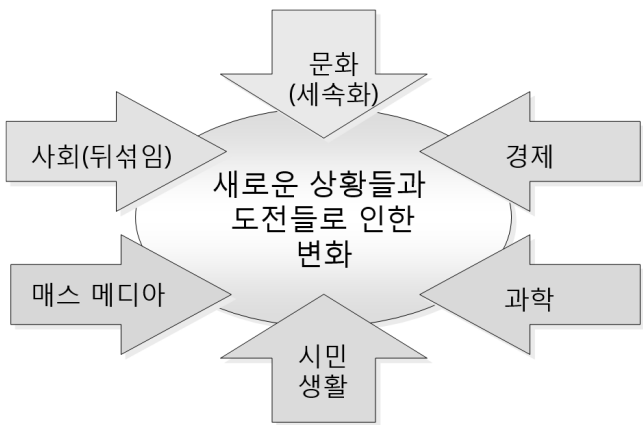
17) 「의안 개요」 5항.

새로운 복음화의 3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의안 개요」(Lineamenta)에서는 복음화를 위협하는 현대 사회의 시대적 도전들을 다음과 같이 여섯 분야로 나누어 숙고하길 제안한다. 이 영역들은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며 이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분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표 3>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식별해야 할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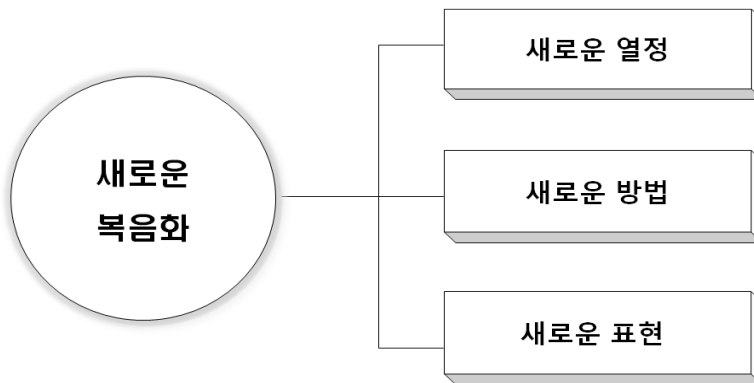
18) 「의안 개요」 6항.

- 1) **문화 부문** : 만연한 **세속주의**가 그 첫 번째에 위치한다. 세속주의는 주로 서구 사회와 관련되지만, 사실 이는 서양에서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세속주의는 반(反)그리스도교적이고 반종교적인 색채를 띠기도 하지만 이에 한층 더 나아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점령하여 하느님이 배제된 사고 방식을 부추긴다.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 문화로서 교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인간학적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 세속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종교 부흥의 징후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종교들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거룩한 것들을 재발견하려는 많은 긍정적인 측면들은 안타깝게도 “종종 폭력과 심지어 테러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종교를 조종하는 근본주의 현상으로 무색해지고 있다”(6항).
- 2) **사회 부문** : 두 번째로 언급된 분야는, “도시, 국가, 대륙별 민족의 짜임새”(6항)를 바꿔놓고 있는 **이주 현상**이다. 다양한 이유를 지닌 이주 현상은 세계화 현상과 연관되어 있는데, 세계화 현상은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있어서 식별하는 데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3) **사회 커뮤니케이션 부문** :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컴퓨터 혁명은 교회에 대한 커다란 도전들 가운데 하나다. 미디어와 디지털 문화는 그 자체로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내재적 위험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위험의 귀착점은 “덧없는 새로움, 순간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문화, 다시 말해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는 사회의 형성이다”(5항).
- 4) **경제 부문** : 교회 복음화의 당면 과제는 경제적 위기와 조우한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면 “자원의 접근과 배분에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불균형한 성장을 보이며 “창조에 해를 입히게” 된다(6항).
- 5) **과학과 기술연구 부문** : 교회의 복음화 활동에 도전하는 과학 기술은 사실 오늘날의 새로운 이상, 새로운 종교가 될 위험이 있다. “지식과 의미가 삶을 비현실적으로 구성하는 데서 얻어져 기술이 그 자체로 일종의 철학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앎’(gnosis)이 나타나고 있다”(6항). 더욱이, 우리는 새로운 숭배가 생겨나 종교적 실천을 부와 순간적 만족을 쫓는 병적인 형태로 바꾸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6) **정치 부문** : 지난 수십 년의 시대적 변화들을 담고 있는 **정치 분야도 빼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동안 둘로 갈라진 서방 세계의 분열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종교의 자유와 지역 교회들의 재편이 촉진되었다. 더불어, 정치, 경제, 종교 분야의 새로운 동인들이 아시아와 이슬람 세계와 같은 지역에서 세계 정치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보편교회는 이러한 분야에서의 식별과정이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복음화 활동을 뒷받침하고 그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다. 오늘날 다원화, 다면화, 다층화된 현대 사회에서 위의 각 상황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어떤 점들이 복음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들인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교회가 신앙을 전수하고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새로운 복음화에 해당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화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들을 중요하게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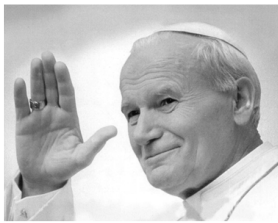
5. 새로운 복음화의 구성요소들



새로운 복음화 구성요소 1 : 새로운 열정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처음 라틴아메리카에서 ‘새로운 복음화’를 말씀하실 때에는 새로운 방식의 재복음화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는 만민선교와 재복음화를 모두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즉, ‘새로운 복음화’란 첫 복음 선포와 재복음화를 아우르며 그 방식이 과거의 선교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발전한 것이다.

폴란드 방문 1979년 6월 9일



-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 그곳이 사랑을 통한 인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닿은 곳이라는 표징도 일어납니다.
-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새천년이라는 문턱에서, 곧 실제로는 늘 똑같은 것이지만, 마치 새롭게 선포된 것처럼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 12월 30일자로 반포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새로운 복음화 논의는 보편교회의 차원으로 확장된다.

“오늘날 교회는 다른 민족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만민 선교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민족들의 재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면서 또 다른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과 개별교회들과 보편교회는 과거의 선교사들이 지녔던 똑같은 용기와,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같은 자세를 가지도록 요청받습니다.”¹⁹⁾

여기서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는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최초의 선교사들이 지녔던 용기와 힘을 우리 시대에 되살리는 열정(ardor)에 강조점이 놓여진

19)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Redemptoris missio*) 30항, AAS 83 (1991) 276; 참조 : 1-3항, AAS 83 (1991) 249-252.

다. 따라서 ‘새로운 복음화’란 좁은 의미의 선교 개념인 신자 수를 늘리는 양적 선교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주창하신 ‘복음화’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게 된다.

☑ 새로운 복음화는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영적 쇄신이다.

‘새로운 복음화’는 지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영적인 활성화를 의미하며, 새로운 책임감과 힘을 갖는 여정의 출발점으로서 교회가 기울이는 모든 새로운 노력에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새로운 복음화’는 새로운 선교와 복음화의 노력을 일깨우고 쇄신하는 수단의 의미로도 이해된다,

새로운 복음화는 “무엇보다도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을 지닌 국가에서 교회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이 대상”임을 일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근세기 복음 선교가 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그리스도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지역 교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복음화’란 비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만민선교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그리스도인이면서 복음화가 제대로 체현되지 못한 현대인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제복음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표현을 강조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1987)과 회칙 「교회의 선교사명」(1990)에서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는 확장되고 또한 강조된다.

“교회는 오늘날 복음화 노력에서 대약진의 거보를 내디뎌야 하며, 폭넓은 선교활동(복음화)에서 역사의 새 시대로 들어서야 합니다. 거리가 가까워지고 세계가 점점 더 좁아지는 세상에서, 교회공동체는 그 구성원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여야 하며 생활 역량과 자원을 나누고, 한 집단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유일한 공동 사명에 투신하여야 합니다. ‘이른바 젊은 교회들은 오랜 교회들이 지닌 힘을 필요로 하며, 오랜 교회들은 젊은 교회들의 증언과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하여 개별 교회들은 서로 다른 개별 교회들의 부요를 받아들입니다.”²⁰⁾

새로운 복음화 구성요소 2 : 새로운 방법

‘새로운 복음화’의 ‘새로움’이란 현대 사회와 문화들에 나타나는 중대한 변화들을 인식하고 과감하게 “대약진의 거보를 내디뎌야 하는” 교회의 복음화 노력에 맞닿아 있다. ‘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세상은 변화하고 시대도 바뀌었으며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화의 실현도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수십 년간 이러한 새로운 상황들은 다양하게 대두되었는데, 가령 세속주의가 만연한 시대에서의 문화 분야, 이민과 세계화 현상으로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사회 분야, 그 결과 광범위한 문화적인 혼재 상태, 자원의 배분과 물질적 힘의 사용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경제 분야, 새로운 우상의 위험을 안고 인간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과학과 기술의 연구 분야, 공산주의의 붕괴와 세계 정치 무대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와 이슬람 세계의 확장에서 오늘날의 평화, 발전과 해방, 종교, 인권, 생태·환경 문제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정치 분야 등이 있다. 모두가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자리가 된다.

☑ 사회의 구조적 개선과 교회공동체의 구조적 개선이 새로운 복음화의 구성요소이다.

새로운 복음화의 지평은 개인을 넘어서서 인간 사회 전체를 향하여 있고, 복음화는 사회구조적인 개선과 더불어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삼는다.

“오로지 새로운 복음화만이 깊고 빛나는 신앙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전통을 진정한 자유의 힘으로 삼을 수 있다. 분명코 인간 사회를 다

20)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주교대의회회의 후속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35항, AAS 81(1989) 458.

시 그리스도화하는 일은 전 세계 도처에서 절박하게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실현을 위하여 긴요한 것은 이들 선진 국가나 민족들의 교회 공동체 자체의 구조를 먼저 개선하여 그리스도화하는 일이다.”²¹⁾

☑ 새로운 복음화는 ‘교회가 되는’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복음화’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에서 ‘교회가 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들을 요구한다. 그것의 준거 틀로서 개별 그리스도인의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인 생활과 실천을 ‘교회가 되는’ 새 모델로 제시하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교회가 지닌 다양한 모습 가운데 ‘가정 교회’와 ‘하느님 백성’의 면모를 동시에 지닐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복음화’는 인간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교 조직과 그리스도인 공동체 자체의 틀을 다시 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복음화 구성요소 3 : 새로운 표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유럽 교회를 염두에 둔 ‘오랜 교회’들과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를 염두에 둔 ‘젊은 교회’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제안한다. 오랜 교회들은 종교적 무관심과 세속주의와 무신론의 영향으로 복음의 생명력을 잃었으며, 젊은 교회들은 유사 종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교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본 것이다. ‘새로운 복음화’는 현대 사회와 문화들의 중대한 변화 속에 그리스도 신앙을 지키고 담대하게 전하려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교회가 기울이는 새로운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새로운 복음화는 지평을 넓히고 경계를 넘어서는 선교과업이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자 모든 복음서의 결론인 ‘선교 명령’은 아직 완수되지 않은 채 오늘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존

21) 같은 교서, 3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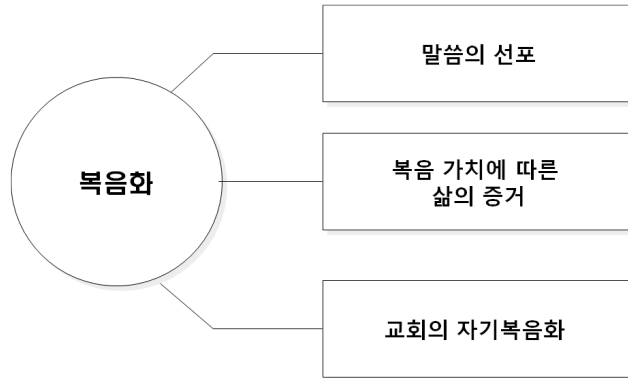
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복음화’는 교회가 자신의 이러한 근본 사명과 정체성, 자신의 존재 이유를 쇄신하여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를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길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자신의 본성인 선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종전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경계를 넘고 지평을 넓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복음화는 새롭게 시작하고 경계를 넘고 지평을 넓히는 역량을 필요로 하는 선교와 같은 말이다. 새로운 복음화는 자기 만족과 자기 축소, 현상 유지(status quo), 그리고 사목 계획은 그저 과거에 해 오던 것을 이어 가면 된다는 생각과는 정반대이다.²²⁾

복음화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고 새로운 복음화는 교회의 기능에 관한 물음이다, 복음화는 **내용**(what)에 관한 내용이고, 새로운 복음화는 **방법**(how)에 관한 물음이다. 따라서 복음화에 따른 사목정책과 새로운 복음화에 따른 사목정책은 그 강조점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미래 사목정책은 복음화의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복음화의 형식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소결

복음화 : 교회의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원으로 삼는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본질이며 본성상 선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선교’이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식민 선교 역사를 거치면서 선교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 ‘선교’가 지닌 그러한 부정적 의미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복음화’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현대의 복음선교」에서 정의하는 복음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2)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3차 정기총회 의제 개요」, 10항.



새로운 복음화 : ‘복음화’가 교회의 본질(What)에 관하여 다룬다면, ‘새로운 복음화’는 본질을 담기 위한 형식 내지 기능(How)을 다룬다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복음화’는 ‘복음화’의 사명을 현실적인 맥락 안에서 잘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고 시도이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새로운 상황과 조건에 맞서 용감하게 새 길을 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복음화는 처음의 복음화를 다시 한다거나, 과거의 것을 단순히 되풀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변화된 환경과 조건들에 응답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것이다.”

‘새로운 복음화’의 주요 3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새로운 열정(new Ardor)** : ‘새로운 복음화’란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영적 쇄신을 말한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생활에 영향을 주는 변화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신앙의 기억을 다시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에 차서 신나게 선포하는 새로운 책임감과 힘을 갖는 여정의 출발점이다.²³⁾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고귀한 가치들을 발견하면서 인간을 억압하는 세상의 힘을 이겨나간다.

- 2) **새로운 방법(new Method)** : ‘새로운 복음화’는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이자 담대한 행동양식이며, 교회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상황들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다. 특히 정치, 문화, 경제적 영역에서의 세계화 현상은 전 지구적 차원의 복음화 노력이 새로운 복음화의 구성요소임을 일깨운다.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교회가 되기’ 위한 복음화의 새 접근법들을 모색하고,²⁴⁾ 복음의 가치에 바탕을 둔 사회 조직과 교회 조직,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틀을 새로 짜는 것도 포함된다.²⁵⁾ 그리하여 사회의 구조적 개선과 교회 공동체의 구조적 개선이 새로운 복음화의 구성요소가 된다.

23)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교황 권고 「아프리카 교회」(*Ecclesia in Africa*), 57.63항, AAS 88(1999) 35-36.39-40 참조 ;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교황 권고 「아메리카 교회」(*Ecclesia in America*), 6.66항, AAS 91(1999) 10-11.56 ;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교황 권고 「아시아 교회」(*Ecclesia in Asia*), 2항, AAS 92(2000) 450-451 ;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교황 권고 「오세아니아 교회」(*Ecclesia in Oceania*), 18항, AAS 94(2002) 386-38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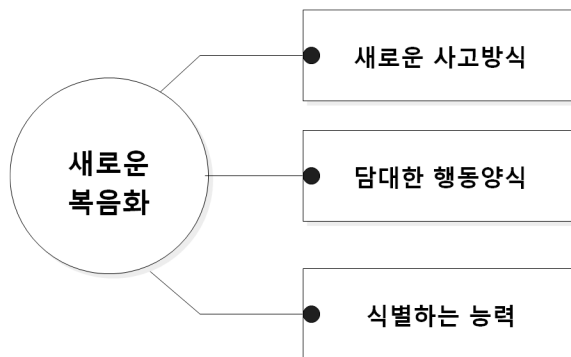
24) 「의제 개요」, 9항.

25) 「평신도 그리스도인」, 34항 참조.

3) 새로운 표현(new Expression) : ‘새로운 복음화’는 복음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새로운 언어의 사용과 표현을 시도한다. 그리하여 복음에 따른 신앙생활을 신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어야 한다, ‘새로운 복음화’는 지평을 넓히고 경계를 넘어서는 선교 과업이며, ‘교회가 되는’ 새로운 길이다. 따라서 교회의 자기 만족과 자기 축소, 현상 유지(status quo), 혹은 그저 과거에 해 오던 것을 이어가는 사목계획이라면 ‘새로운 복음화’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²⁶⁾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구별한다면, ‘복음화’는 교회 사명의 본질에 해당하고, ‘새로운 복음화’는 그 본질을 잘 실행하기 위한 기능적 측면임을 이해할 수 있다. 교회의 본질인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기능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것이 ‘새로운 복음화’의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새로운 복음화’에 따른 사목정책은 복음화의 내용을 어떻게 현실에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능적 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는 현실에 대한 분석이다. ‘지금, 여기’(hic et nunc)라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고, 그 현실을 바탕으로 복음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들을 창의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복음화’란 구체적 상황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를 알아보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복음화의 길을 만들 수 있는 ‘담대한 행동양식’과 복음의 가치를 ‘식별하는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26) 「의제 개요」, 10항.

제3장. ‘새로운 복음화’의 과제와 사목적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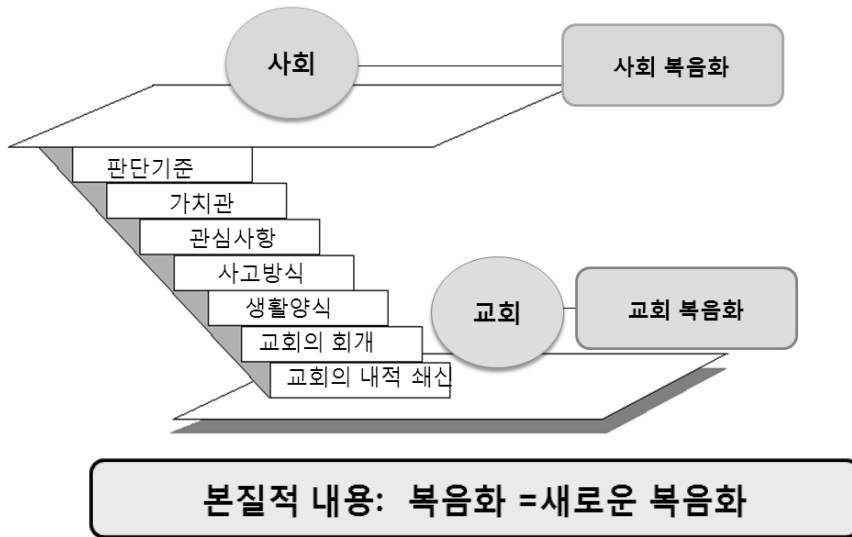
1. ‘새로운 복음화’의 본질

서울대교구는 2011년 사목교서를 통해 ‘새로운 복음화’에 입각한 사목계획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복음화’가 지향하는 본질적 내용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지향하는 ‘복음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로운 복음화’는 ‘복음화’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적으로 시선을 돌려 교회의 자기 쇄신을 도모하고 동시에 교회 외적으로 시선을 돌려 세상을 복음화하라는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2011년 「사목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와 신자들의 ‘자기복음화’입니다. 교회는 복음 선포자이지만 먼저 교회 자신이 끊임없는 회개와 쇄신으로 자신을 복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복음화의 대상은 교회 안뿐 아니라 교회 밖, 그리고 모든 피조물까지 이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화는 인류 사회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 사항, 사고방식, 영감의 원천,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현대의 복음선교』 19항). 그럼으로써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라는 주님의 복음화 명령을 한국 교회와 사회 모두에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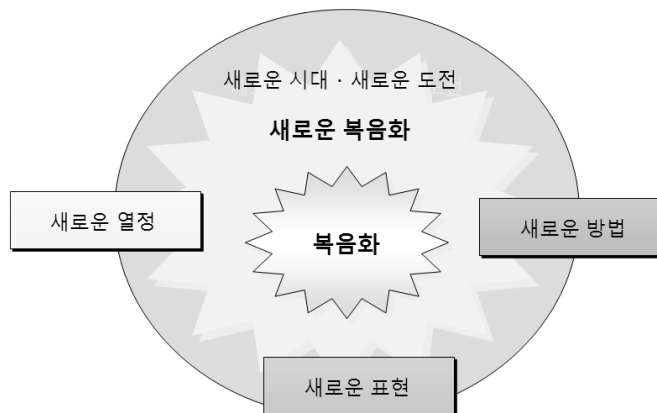
위에 기술한 내용이 ‘복음화’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이것은 ‘새로운 복음화’의 본질적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로운 복음화’에 입각한 교구사목정책은 교회 내적 자기쇄신과 교회 외적 세상의 복음화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향을 정책의 큰 틀로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복음화’의 방향

1) 2020년을 향한 새로운 복음화

교구의 ‘새로운 복음화’ 과제는 한마디로 ‘2020년을 향한 선교’라고 말할 수 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기점으로 교회의 선교는 ‘복음화’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새로운 시대적 도전 앞에서 교회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표현으로 복음화의 내용을 새롭게 담아 전해야 한다.



교구의 이러한 새로운 복음화 과제를 2011년 「사목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복음화 2020 운동’의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외적인 교세의 증가뿐 아니라 복음적 생활의 실천과 이를 통한 인류의 쇄신, 인류의 복음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구는 2020년을 향해 가면서 중장기 계획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주제로 삼아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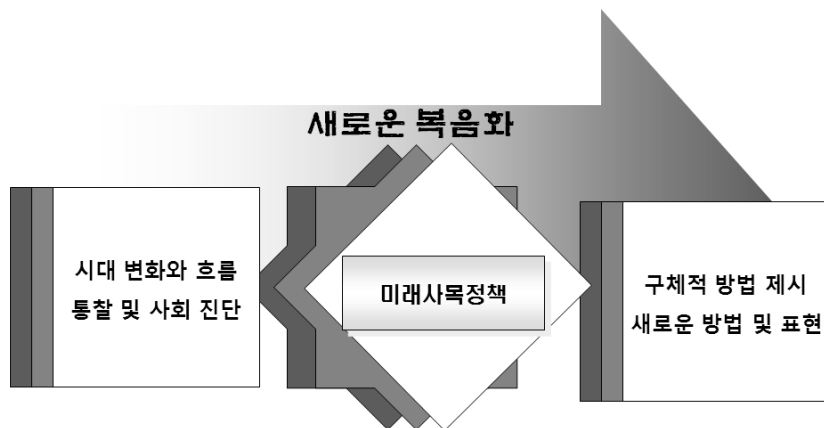
교구의 ‘새로운 복음화’ 과제는 2020년을 향한 양적 선교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질적 선교에도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인구 대비 가톨릭신자의 비율을 20%로 성장시키겠다는 양적 선교에 치중하던 사목정책의 방향이 ‘새로운 복음화’ 사목정책을 추진하면서 질적 복음화 개념으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복음화에 따른 미래 사목정책은 단순히 신자 수 증가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생활실천을 통한 세상 복음화**를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복음화’의 방법

2011년 「사목교서」는 ‘새로운 복음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각 지역과 본당에서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자기 쇄신과 반성, 복음화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각 지역과 지구가 사목적 환경에서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올바로 파악하여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안하고 사목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구, 본당, 특수사목 등 각 분야와 장소에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올바로 파악하고 동시에 ‘새로운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본당과 단체, 지역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목적인 열정을 기울인다면 ‘복음화 2020운동’의 외적인 목적과 함께 내적인 목적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일과 2) 새로운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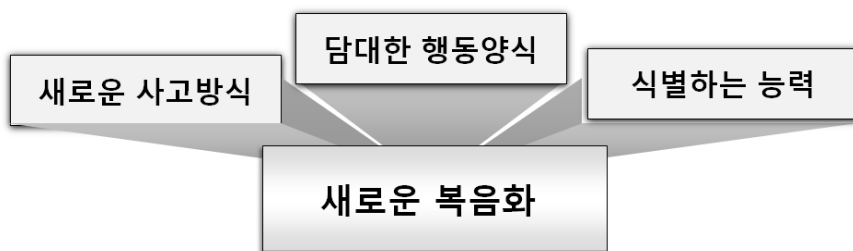
그런데 이 두 가지 과제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한두 사람의 판단이나 아이디어로 수행하기 어려운 난제에 속한다. 교구의 사목정책은 이 두 가지 과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먼저 시대적 흐름에 대한 통찰과 우리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학제적 연구와 더불어 사회과학적인 조사·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적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현실 분석과 상황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복음화’에 따른 교구의 미래 사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연구하고 풀어가기 위한 사목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방향설정과 의지표명 및 담론은 형성되고 있지만, 21세기 시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음화의 방법과 표현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의제 개요」에서도 새로운 복음화의 과제를 지구화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 사회, 경제, 과학과 기술, 정치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상황들 안에서 숙고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로 인식하고 있다. 내년엔 열릴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서 각 대륙별로 문화와 시대적 상황에 따른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구체적 실천들이 논의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새로운 복음화’의 과제

‘새로운 복음화’의 과제는 한마디로 “오늘날 새로운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맞서 용감하게 새 길을 내는 것”²⁷⁾이다. 포스트모던시대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식별의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 분야들 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이러한 분야들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그 안에서 직접 하느님을 증언해야 할 요청을 받는다. 따라서 ‘새로운 복음화’에 입각한 사목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사고방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한 행동양식을 지녀야 하며, 인간 역사 안에서 새로운 상황들을 읽고 해석하는 법을 아는 그리스도교적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²⁸⁾



1) 새로운 사고방식

가.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보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지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의미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한다.²⁹⁾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든 부정적인 방향으로든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어느 한 가지 방식에서 다른

27) 『의안 개요』 5항.

28) 『의안 개요』 6항 참조.

29) “패러다임은 일종의 지도와도 같은 기능을 한다. 지도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어느 지역의 어느 지점들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마찬가지로 패러다임이란 어떤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관한 의견이나 해석이며 모양을 나타내는 모델인 것이다.”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가지 습관』, 김경섭 옮김(서울 : 김영사, 1994), 35쪽.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앨빈 토플러는 인류 역사를 세 가지 다른 패러다임의 변천으로 이해한다. 즉, 농경문화로 인한 제1의 물결과 그에 상응하는 첫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 산업화 시대라는 제2의 물결과 그로 인한 패러다임의 두 번째 변화, 그리고 오늘날 지식정보사회라는 제3의 물결과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그 사회 전반에 걸친 대변혁을 야기하며 공동체와 조직, 인간의 내면세계까지도 바꾸어버린다. 21세기 사회는 세계화, 지구화 시대로 표현되는 제3의 물결시대에 속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더불어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정과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조까지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나. 21세기 사회 변화

현대 사회는 상업적 네트워크(케이블, 위성방송, 컴퓨터)에 의한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식정보화사회로 정의된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현대 사회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였다. 농경사회, 산업사회의 수직적 피라미드 형태의 사회구조가 수평의 원형구조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수직적 사회구조로부터 현대의 수평적 사회구조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사회-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와 가정생활에도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인간 내면의 심리적 영역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산업사회로부터 지식정보사회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수직적 인간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을 구성하는 인간관계 전반에 관한 검토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 21세기 교회 변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교회도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계기로 거의 2천 년 가까이 유지해 온 서구-유럽 중심의 교회관을 탈피하고 복음의 원천으로부터 가톨릭교회를 새롭게 이해하는 변화가 생겼다. 그리하여 가톨릭교회는 ‘제도적 교회’로부터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친교의 공동체’로 전환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그 하나됨을 근거로 하여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 사이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친교의 의미이다. 따라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제시하는 교회의 본질은 한마디로 “친교(Communion)로서의 교회”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³⁰⁾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를 초대 교회 공동체처럼 성령 중심의 교회, 친교를 이루는 교회,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로 전환한다. 여기서 교회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살아 있는 삶으로 이해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며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 현존의 탁월한 장소가 된다. 교회는 세계를 위한 실제적인 하느님의 생명과 빛의 표징으로 이해된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라. 21세기 한국 사회 변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서구 사회가 100여 년에 걸쳐 이루어 왔던 사회 변화를 한국 사회는 단기간에 이루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화(democratization), 경제 성장(economic development), 세계화(globalization)가 빠른 속도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 모든 영역 안에서 빠른 시간 동안 압축적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많은 갈등과 위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말(key word)인데, 한국 사회도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의제 개요」에서도 세계화의 흐름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하는 상황과 조건들(the changing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facing the Church)”^(5항)이라고 규정한다. 현대 세계는 정치적 주권의 측면에서 보면 제국의 형태를 보이며, 경제적 집종의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세계화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떠다니는 듯한 유동적 경향을 띠고 있다. 현대 세계를 묘사하는 여러 규범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³¹⁾

30) 임병헌, 「2000년 복음화를 위한 교회론적 기초」(『가톨릭신학과 사상』 8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2), 85-89쪽.

정희완 신부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 숨겨져 있는 가치 체계들(일종의 이데올로기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위들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시장 중심주의에 대한 맹신, 효율성과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태도, 끝없는 소비를 욕망하게 하는 소비주의, 이 셋은 후기 자본주의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자본주의 체제 안의 이 특징들은 우리들 안에 결국 그 어떤 잠재적 가치관을 심어 놓는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사람들을 가로지르는 핵심 이데올로기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서 파생되는, 외적 물질적 성장을 통해 번영을 이루려는 성장주의, 모든 것들의 상품화를 통해 그 효율성과 경쟁력을 재단하려는 상업주의, 지속적인 소비를 통해 욕구충족을 이루려는 소비주의, 이 셋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 살아가는 이상, 알게 모르게 이 세 이데올로기들에 의해 물들어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³²⁾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주의와 상업주의와 소비주의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계층 간의 갈등을 낳고, 한국 교회의 중산층화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실천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온전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현 시대의 흐름에 대한 통찰과 우리 사회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포스트모더니즘 맥락 안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특성들을 중심으로 이 시대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있다. 그에 관한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김정우 신부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신앙윤리」, 황창희 신부의 「포스트모던 사회 안에서 새로운 복음화와 그리스도교 윤리」, 정희완 신부의 「시대의 징표와 한국 교회, 한국 사회 현실 진단」 등을 참조할 수 있겠다.³³⁾

31) 정희완, 「세계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경향잡지』 2010년 7월호, 28쪽.

32) 정희완, 「경제 성장주의와 그리스도교 신앙」, 『경향잡지』 2010년 2월호, 30쪽.

2) 담대한 행동 양식

정치, 문화, 경제적 영역에서의 세계화 현상은 전 지구적 차원의 복음화 노력이 새로운 복음화의 구성요소임을 일깨운다.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교회가 되기’ 위한 복음화의 새 접근법들을 모색하고,³⁴⁾ 복음의 가치에 바탕을 둔 사회 조직과 교회 조직,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틀을 새로 짜는 것도 포함된다.³⁵⁾ 그리하여 사회의 구조적 개선과 교회 공동체의 구조적 개선이 새로운 복음화의 구성요소가 된다.

‘새로운 복음화’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정신을 이어받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한국 교회의 구체적인 사목활동으로 ‘소공동체’ 사목을 들 수 있다. 또한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담대한 행동양식으로 지난 세기 한국 가톨릭교회가 한국 사회에 보여준 ‘사회 복음화 활동’을 들 수 있다.

가. 소공동체 사목 모델

서울대교구의 경우 1992년부터 이천년대 복음화와 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사목이 시도되었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상(理想)으로 현대화시켜 보려는 노력이었다.³⁶⁾ 1993년 서울대교구가 공식적으로 교구 사목에 ‘소공동체’를 적용한 이래 오늘날 거의 모든 교구에서 소공동체 중심의 사목을 강조하고 있다. 소공동체는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 교회의 모습으로 제안되었고, 2000년 이후 각 교구마다 소공동체 중심의 사목체제로 전환되었다. 연초에 발표되는 각 교구장 사목교서에서 지난 10년간 소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이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소공동체 사목은 교구정책에 접목을 시도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소공동체사목이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담대한 행동양식인지에 관해 평가와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33) 김정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신앙윤리」; 황창희, 「포스트모던 사회 안에서의 새로운 복음화와 그리스도교 윤리」, 『누리와 말씀』, No.18, 2005; 정희완, 「시대의 징표와 한국 교회, 한국 사회 현실 진단」,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의제 개요 답변서 마련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2011. 18-25쪽.

34) 「의제 개요」, 9항.

35) 「평신도 그리스도인」, 34항 참조.

36) 박기주, 「2000년대 복음화와 소공동체」, 『가톨릭신학과 사상』 9집,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3, 99-110쪽.

(1) 소공동체가 지향하는 교회의 본질

‘교회 현장’에서 교회는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신비체”로 정의된다. 교회는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며 표지”이다. 또한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인데, 곧 성직자, 평신도, 수도자가 하나 된 공동체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그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에서 소공동체 사목이 제안되었다. 소공동체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제안하는 친교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한국형 교회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 강우일 주교는 교회의 사목 현장에 소공동체를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성사를 통하여 받은 하느님의 은총의 지위와 은사를 십분 발휘하여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헌신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역할과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하면서 “소공동체는 교회 내에 또 하나의 신심 운동 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와 친교라는 교회의 본질을 더 실현하기 위한 쇄신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소공동체는 교회가 이천 년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변신해 온 그 진화의 과정에서 또 한 단계 더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한 이 시대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것이다.³⁷⁾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살도록 부름 받은 교회가 새로운 상황과 조건이 변화 맞서 용감하게 새 길을 내는 것”(의제 개요, 5항)이라고 한다면, 소공동체 사목은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대담하게 새 길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소공동체는 교회의 쇄신과 새로운 방향의 사목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곧,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지향한다. 위로부터 하향식의 수직적인 교회 구조를 탈피하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서로 평등하게 인격적 친교를 이루는 수평적 교회로 나아가도록 시도한다. 소공동체 사목은 단순히 교회가 대형화되고 도시 본당이 비대해져서 신자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아니다. 소공동체 사목은 현대 사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의지대로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버림받은 자를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고 공동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하느님의 가없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랑을 가난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37) 강우일, “더욱 성숙한 교회를 향하여”, 『사목』 2004년 10월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쪽.

(2) 소공동체 사목과 관련된 걸림돌

소공동체가 한국 교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알려진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과연 소공동체가 미래 한국 교회 사목의 유일한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의 소공동체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교회의 길”로서 “전체 교회가 마땅히 바라보고 가야 할 길, 하느님 나라를 추구한다”³⁸⁾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형 소공동체로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에 따른 이 땅의 복음화를 실현할 수 없을뿐더러 교회의 정체성마저 잃을 위험이 있다”³⁹⁾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소공동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한국의 소공동체가 이상(理想)과는 달리 성직자 중심주의, 교계 중심주의를 강화시키고 소공동체를 수직적 하부 구조로 전락시킨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다.⁴⁰⁾ “한국형 소공동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 모임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의회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의회 이전의 성직자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미래는 한국형 소공동체가 아니라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교회에 있다.”⁴¹⁾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목자들은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을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형 소공동체는 왜 이론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수직적 구조를 띠고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목 현장인 본당에서 소공동체가 현실적으로 성직자의 수직적 하부 구조로 전락하는 한국형 소공동체에 있다고 지적된다. 교회가 지닌 삼위일체 신비의 차원, 하느님과의 일치와 세상과의 일치를 보여주는 표징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소공동체’ 사목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다 보면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제시하는 교회의 본질은 실종되고 교회의 겉모습만 바뀌기 때문이다. 곧, 수직적 교회 구조의 패러다임에 소공동체의 옷만 입힌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들이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 ‘소공동체’ 사목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여야 할

38) 김정용, “소공동체, 멈출 수 없는 교회의 길”, 『경향잡지』 2009년 1월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84-87쪽.

39) 이제민,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한국 천주교회와 소공동체”, 『신앙과 삶』, 부산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8년, 294-320쪽.

40) 윤민구, “한국 천주교회 소공동체 운동”, 『사목』 2007년 4월호, 64쪽.

41) 이제민, 앞의 글, 295쪽.

터인데 소공동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 주-객 전도 현상이 생겨난다. 따라서 소공동체라는 교회의 형식보다는 교회의 본질을 하느님 백성 모두 공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에 교회의 철저한 자기 쇄신과 신자들의 신앙 성숙이 요구된다.

(3) 소공동체 사목 안에서의 갈등

소공동체 사목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른 어려움들도 생겨났다. 그중 하나가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들과의 관계 정립 문제이다. 신자들은 사도직 단체에서 활동하길 선호했고, 일부 사목자들은 소공동체 사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들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조장되었고 사목자와 신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도 있었다. 소공동체는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반모임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또 다른 단체 활동처럼 여겨졌다. 신자들 중에는 자신이 속한 사도직 단체에는 열성적으로 참여하면서 소공동체 모임은 의례적인 모임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가장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는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는 소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려는 본당일수록 소공동체와 마찰을 빚었다. 그러자 일부 본당 사목자는 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레지오 마리아를 지역으로 재편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기도 하였다. 그러한 일들은 사목자와 평신도 간의 갈등을 야기시켰다. 소공동체를 본당 안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풀어나가야 할 우선적 과제는 사도직 단체들과 소공동체 사목과의 관계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4) 소공동체 사목의 긍정적 측면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살도록 부름받은 교회가 새로운 상황과 조건이 변화 맞서 용감하게 새 길을 내는 것”(의안 개요 5항)이라고 한다면, 소공동체 사목은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대담하게 새 길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소공동체는 교회의 쇄신과 새로운 방향의 사목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5) 소공동체 사목의 부정적인 측면

소공동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한국의 소공동체가 이상(理想)과는 달리 성직자 중심주의, 교계 중심주의를 강화시키고 소공동체를 수직적 하부구조로 전락시킨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다.⁴²⁾

“새로운 복음화란 계속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 안에서 교회가 되기 위한 복음화의 새 접근법들을 모색”(의안 개요 9항)하는 것이라고 할 때, 소공동체 사목도 한국의 사회 문화적 환경 안에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표현’을 찾는 노력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나. 사회복음화 활동

‘새로운 복음화’의 과제인 ‘담대한 행동양식’의 모델을 한국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음화 활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새로운 복음화’의 과제는 지난 시대가 아니라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즉 제3의 물결인 지구화시대를 배경으로 어떤 담대한 행동양식을 할 수 있는지를 논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대한 행동양식’이라는 방법만을 놓고 볼 때, 한국 가톨릭교회는 이미 그러한 길을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경험은 앞으로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어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 가톨릭교회가 보여준 ‘담대한 행동양식’은 한국 사회 속에서 가톨릭교회가 역사적 현장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국 교회가 걸어갔던 길을 최현주의 논문 「한국 천주교회 복음화를 증가 요인과 사목 대안」을 참조하여 시대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⁴³⁾

(1) 1960년대 : 급격한 산업화로, 한국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68년 1월, ‘심도 식물’의 노사분규는 교회가 사회 문제에 입장을 밝힌 첫 번째 사건이었다. 당시 교회는 가톨릭 노동 청년회가 깊이 개입되었던 ‘심도 식물’ 사건에 대해, “사회 정의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라는 주교단의 공동 교서를 발표함으로써 노동 운동의 정당성을 표명하였다.

(2) 1970년대 :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주교회의 산하 정의평화위원회가 발족하였고, 가톨릭 노동 청년회·가톨릭 농민회

42) 윤민구, 「한국천주교회 소공동체 운동」, 『사목』, 2007. 4. 64쪽.

43) 최현주, 「신자율 증가 요인에 대한 시대별 분석」 2009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복음화위원회 학술 심포지엄 『한국 천주교회의 새복음화 현실과 전망』.

등과 같은 교회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74년 7월 민청학련사건으로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가 체포되면서, 교회의 민주화 운동도 본격화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직된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평신도 운동단체·학생 청년들과 연대하여 반독재 투쟁과 인권 운동에 앞장섰다.

(3) 1980년대 : 한국 교회는 1980년대에도 스스로 쇄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그 결과 국내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81년에는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을 맞아 각종 문화·학술 활동과 시복시성 운동, 세계성체대회 및 최초의 외방 선교가 시작되었다. 1985년 이후에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시국 기도회가 도처에서 열렸고, 1986년에 발생한 부천 성고문 사건의 규탄 집회가 명동 성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1987년 6월에는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박종철 학생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저항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6·29 선언(1987년)과 민주화과정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4) 1990년대 : 한국 교회는 사회 정의, 사회 복지 신장은 물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였다. 1992년 대구대교구에서 사할린에 선교 사제 파견, 1994년 6월 어려운 농촌을 돕기 위해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 발족, 1995년 2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를 발족시켜 대북 지원을 본격화하였다. 1998년에는 IMF로 인한 실직자 돕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1995년 3월 평화방송 케이블 TV를 개국하여 영상 매체에 의한 선교 시대를 열었고, 미사통상문 및 기도문을 개정하였다.

(5) 2000년대 : 대희년 준비로 각 교구는 시노드를 개최하였고, 2001년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을 맞아 2002년 3월에는 ‘시복 시성추진 대상 순교자 124위’를 확정하여 9월에 교황청 시성성의 인준을 받았다. 2006년 2월 22일에는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대주교가 추기경에 임명되어 37년 만에 두 번째 추기경이 탄생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농경사회를 탈피하여 산업사회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만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리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권력의 억압이 자행되는가 하면, 인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근대 국가가 올바른 민주-시민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기초한 사회공동선 추구와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도덕성 회복이 필수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다보니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모순들을 낳았고, 경제적 빈부 격차와 인간존엄성 상실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불의에 대하여 한국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라 사회정의의 실현과 인간성 회복이라는 구체적인 복음화 활동들을 담대하게 실천해 나갔다. 그러한 활동들은 ‘새로운 복음화’의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새로운 복음화가 “새로운 사고방식이고 담대한 행동 양식이며 그리스도교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상황들을 읽고 해석하는 법을 아는 능력”(『의제 개요』 6항)이라고 할 때, 한국 교회는 이미 1970-1980년대에 그러한 ‘새로운 복음화’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김수환 추기경⁴⁴⁾을 중심으로 복음 정신에 입각한 정의와 공동선, 민주화와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가 처한 시대적 징표를 읽어내고 복음의 정신에 입각하여 실천적 사회운동을 전개시켰으며, 그러한 담대한 복음화 방식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종교 단체가 될 수 있었다.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해 대 사회적인 가톨릭교회의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1983년도 설문조사를 보면, 천주교회에 호감을 갖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사회 위기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주는 종교이기 때문에”가 38.4%의 응답률을 보였고 “참종교이기 때문에”가 36.2%의 응답률을 보였다.⁴⁵⁾ 1995년도까지의 신자 수 증가는 교회가 선교 자체에 대해 기울인 노력보다는 민주화와 사회 정의에 앞장선 교회의 존재가 민중의 시

44) 김수환 추기경은 1974년 10월 로마에서 열린 세계주교대의회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기적들이 화해와 구원의 표시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계에서 정의의 구현도 주의 부활을 나타낼 것이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신뢰의 표시이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화이다.” 박일영, “1970년대 한국 가톨릭교회의 정의 구현 운동”,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 인식』 통권 44호, 1988년.

45) The Pastoral Congress Committee for the Bicentennial of the Catholic Church of Korea(Hrsg.), *A Survey Report on the Religious Life of the Laity in the Catholic Church of Korea*, Seoul 1983, S. 28).

대적 요구와 부합한, 새로운 복음화의 관점에 부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가톨릭교회의 교세 성장은 직접 선교의 방식도 있었지만, 또한 그러한 간접적인 사회 복음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컸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명시적으로 ‘새로운 복음화’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사회를 복음화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선교 및 복음화를 수행해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복음화’의 맥락에서 사목의 비전을 찾는다면, 어떻게 한국 사회를 복음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한국 사회는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지식정보사회로 재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러한 전반적인 사회 변화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시대적 도전들이 새롭게 다가왔다. 그리하여 교회의 복음화 활동도 변모를 겪고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복음화 활동은 ‘생명윤리’와 ‘환경생태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개발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훼손시키는 일은 창조주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생명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 단계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조작하거나 개입하면서 생명윤리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은 마치 인간이 스스로 생명의 주인인양 착각하게 만들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크게 위협한다. 한국 사회는 자살, 낙태, 사형제 등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죽음의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맞서 가톨릭교회는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살려내고 ‘생명의 문화’를 피워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가톨릭교회가 지향하는 근본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하느님의 뜻과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일이다. 앞으로 가야 할 새로운 복음화의 방향은 ‘생태 환경윤리’와 ‘생명윤리’를 위해 ‘담대한 복음화 방식과 행동양식’들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3) 식별하는 능력

교회는 시대의 징표들을 읽고 그 징표들을 복음의 빛으로 해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사목 헌장, 4항). 시대의 징표를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곧 복음화를 위한 식별의 과정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별 과정은 실제 삶의 요소들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복음화’의 맥락에서 식별과정은 사목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한다.

식별의 과정에서 교회는 개인의 경험과 역사적 사건 및 사회적 상황들을 숙고한다. 또한 식별의 과정 안에 사회·문화적 분석과 신학적 해석을 포함시키고, “교회 활동의 핵심 측면들에 대한 숙고”(의제 개요, 4항)와 성찰도 포함시킨다. 따라서 식별의 전체 과정은 복음에 비추어 시대적 징표를 읽고 해석하는 것과 식별된 시대적 과제에 비추어 복음의 의미를 재점검하고 재해석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al circle)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사목적 순환(pastoral circle)의 과정이 될 것이다.

교구의 정책을 입안하기에 앞서 이러한 식별의 과정은 필수적이다. 교구에서의 식별과정은 교구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제단과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도움 및 평신도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정희완 신부가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의안 개요 답변으로 제출한 한국 교회에 관한 식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 개요 설문 2. 여러분 교회가 역사적 사건들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보편교회와 나눌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이러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보편교회는 성령께서 복음화 활동에서 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답변 : 급변하는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 역시 빠른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⁴⁶⁾ 한국 교회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은 신자 증가와 사회적 영향력을

46) 강인철, 「한국 천주교회의 쇄신을 위한 사회학적 성찰」, 우리신학연구소, 2007년 참조.

키워왔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성장은 영적 쇄신과 부흥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호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과 공헌은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민주적 시민사회의 발전에 대한 교회의 기여는 교회가 한국 민주화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낳았다.

남북 긴장 관계에서도 교회는 갈등의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남북의 대치 국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에 대한 사목적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 해군 기지에 대한 교회의 반대 운동은 분단 사회에서 평화를 위한 교회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성찰케 하는 사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외형적 성장과 교회의 사회적 역할의 확대 경험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종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

다종교 사회인 한국 사회 안에서의 교회 성장은 아시아 복음화에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 교회는 아시아 선교를 위해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자처한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중국 선교와 동남아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노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작은 징표이기도 하다. (아시아 각 나라 성소자들의 한국 신학교 유학과 양성, 중국과 동남아에 한국 선교사의 파견 등).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점증하고 있다.

4.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준거와 사목적 제안

새천년을 맞이하여 한국 사회는 제3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지식정보사회로 재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러한 전반적인 사회 변화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시대적 도전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복음화’를 실현하기 위한 준거를 제안하고 2003년 교구 시노드에 입각하여 몇 가지 사목적 제안을 하고 싶다.

1) ‘새로운 복음화’의 준거 제안

- (1) 새로운 복음화는 **현장**을 **중심**으로 펼쳐져야 한다. 복음화는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땅이란 사람들이 생활하는 삶의 자리를 의미하기에 바로 현장으로부터 복음화를 향한 실천이 시작되어야 한다.
- (2) 새로운 복음화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내용과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가톨릭교회의 중심 전례인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현재화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나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3) 새로운 복음화의 새로운 방법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나 율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이나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신다. 제도나 형식보다 사람이 중요함을 일깨우신다. 새로운 열정이란 예수님에게 기원을 가진다.
- (4) 새로운 복음화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새로운 방법으로 삼는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내준다. 새로운 열정으로 복음에 다가가기 위해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고, 가장 가난한 자리에 교회가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 (5) 새로운 복음화의 방식은 **정의**에 기반해야 한다. 여기서 정의란 공동체의 공동선을 지향하고 하느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 정의를 말한다. 하느님의 정의는 인간의 기준이나 가치관과는 다르다. 인간 사회의 분배정의를 넘어서서 복음적 가치기준에 따른 정의가 정립되어야 하겠다.
- (6) 새로운 복음화 활동은 ‘**생명윤리**’와 ‘**환경생태윤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개발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훼손시키는 일은 창조주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생명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 단계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조작하거나 개입하면

서 생명윤리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은 마치 인간이 스스로 생명의 주인인양 착각하게 만들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크게 위협한다. 따라서 앞으로 가야할 새로운 복음화의 방향은 ‘생태 환경윤리’와 ‘생명윤리’를 위해 ‘담대한 복음화 방식과 행동양식’들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 (7) 한국 사회는 자살, 낙태, 사형제 등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죽음의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맞서 가톨릭교회는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살려내고 ‘생명의 문화’를 피워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가톨릭교회가 지향하는 근본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하느님의 뜻과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일이다.

2) 2003년 교구 시노드에 입각한 사목적 제안

2003년 시노드 최종문서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를 보면, ‘교회운영’에서 교구에 기획부서를 신설하여 사목 전망을 세우고 교구의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총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 실천과정에서 본당의 새로운 복음화를 돕기 위해 사목보조 시스템으로서 사목연구소를 제안한다. 또한 지구와 본당 중심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선교·신앙교육’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목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교구 조직과 기획부서에 관해 :

- 사목현장인 본당과 지구가 교구 사목 구조의 중심이 되고, 교구청의 제 조직과 기구는 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본당과 지구는 지역 정서와 문화적 환경에 맞는 고유한 사목방침을 개발, 발전시키고 아울러 교구장의 사목 지침과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교구 전체가 사목의 일관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 교구의 사목정책을 실행할 부서나 기구는 지구로 이전할 수 있다.
- 교구의 제 부서나 기구는 지구와 본당의 사목 정책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획, 행정, 관리기능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 교구에 기획부서를 신설하여 사목 전망과 교구의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총괄하며, 지구와 본당 중심의 사목 활성화를 위하여 사목적 현안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기획해야 한다.

교구의 기획부서는 전반적인 사목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목정책들을 입안하고 사목정책의 실행은 지구 및 본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따라서 기획부서에서 교구 전체가 나아갈 ‘새로운 복음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목정책들을 입안하게 된다. 그런데 새로운 복음화에 따른 사목정책의 입안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실진단에 따른 제반 기초연구작업과 아울러 구체적인 방법 및 표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부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목 연구가 필수적이다. 사목연구팀 혹은 사목연구소는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제반 사목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하게 된다.

(2) 사목연구소에 관해 :

- 사목국이 중심이 되어 본당 사제의 사목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목연구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즉, 사목국은 실제 현장의 본당을 위한 본당사목 지원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교구와 현장 사목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통로로 사목국이 전환되어야 한다. ‘새로운 복음화’의 실제적 상징은 교구와 본당과의 소통, 사목적 소통이며 사목국과 일선사제와의 소통이기 때문이다.
- 교구가 신자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제들과 소통하고, 사제들이 필요로 하는 사목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본당의 봉사자 교육지원시스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일선 사제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 사목 지원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제지원을 위한 강론자료, 전례자료를 조사, 연구, 제작하여 제공해 주어야 한다.
- 교회의 보편적인 가르침과 성경의 내용을 실제 강론이나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업데이트 해주어야 한다.
- 사제지원을 위한 연구 체제 : 통합적 시각에서 사목연구가 필요하다. 정관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 사제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공동 주제를 중심으로 부서별 담당신부들이 협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3) 선교·신앙교육에 관해 :

① 선교·신앙교육

- 교구 차원의 사목연구소 혹은 사목센터가 설립되어 일선 사제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자료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공의회 문헌과 보편교회의 가르침을 신앙교육에 접목시켜서 예비자교리, 영세 후 교육, 견진교육에서 실시해야 한다.
- 신자들에게 맞는 수준별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교육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사회사목 분야가 사회 현실문제와 접목될 수 있도록 환경, 생명, 노동사목, 교정사목 등의 전문적인 사회사목 분야가 신앙교육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론을 넘어서서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② 신앙교육 시스템의 변화

- 본당, 단체, 사회사목의 여러 현장들이 교육과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적 사목시스템이 필요하다.
- 본당에서 시행되는 계절별 교육(대림, 사순특강)과 접목될 수 있는 교육자료 및 교육운영팀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
- 청소년 교육과 신자재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신학교교육에서도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시대에 부응하는 교회의 보편가르침들(사회교리 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③ 교구-지구-본당 조직체계 구축

- 교구는 선교와 신앙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구, 본당과 연계하여 교구 차원의 일관된 지침과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사도직 단체나 수도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서로 정보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지구는 교구의 지침을 따라 교구, 본당과 연계하여 신자들을 교육하고, 본당은 교구와 지구의 지침을 따라, 교구, 지구와 연계하여 신자들을 교육한다.

제4장. 결론

‘새로운 복음화’란 말은 이미 새천년을 맞이하기 전부터 회자되던 표현이다. 그리고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소공동체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어떤 면에서는 ‘소공동체 운동’을 통해 ‘새로운 복음화’를 구체화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비판적 견해에 의하면 ‘새로운 복음화’의 핵심인 ‘복음화’보다 ‘소공동체화’로 신자들에게 더욱 각인되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 ‘소공동체 운동’은 분명 ‘복음화’에 있어 큰 획을 그을 만한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한편 ‘소공동체 운동’이 모든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따라서, 다시금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사목현장에서도 그 의미를 적용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화’의 노력이 전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혹자는 이미 한국 교회는 ‘새로운 복음화’의 가장 모범적인 ‘복음화’ 사례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그 어느 교회보다 우리 한국 교회는 분명 신자들의 열정이나 복음화를 위한 적극적 참여가 세계 그 어느 교회에 뒤지지 않음을 자랑할 만하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놀라운 신앙적 모범을 비롯한 지극히 복음화된 충성스런 교회의 역사에 우리는 긍지를 지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의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듯이 현재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급속한 외적 성장과 함께 많은 변화로 인해 분명 예전과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현안문제들이 유럽의 교회를 위기로 몰고 갔던 그것과 너무도 흡사하고 동시에 중남미 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계층간의 갈등, 사회분열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우리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위기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비록 ‘소공동체 운동’을 통해 많은 노력을 시도해보고는 있지만, 급속한 변화의 물결이 극단의 물질주의와 개인적 이기주의가 결합되면서 심지어는

종교적 냉소주의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현안들 앞에, 그 위기가 쉽게 잠들지 않고 있어 많은 냉담자들이 생겨났고 신앙과 실제생활의 괴리를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복음화’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절실히 필요한 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법과 표현으로 복음화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복음화를 위한 열정 역시 새로운 모색과 연구 없이 단순한 조직의 개편과 더불어 ‘소공동체화’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현안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의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연구와 더불어 교회 내의 모든 교육의 장을 전면 활용하여 크게 보강하되,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한 교회의 큰 축과, 더불어 보편교회의 가르침들을 강조하는 계시의 또 다른 축인 ‘성전’의 가르침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 교육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더불어 무수히 많은 보편교회의 가르침들이 신자들의 생활 속의 구체적인 현안 문제들을 풀어내는 열쇠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정리한 ‘새로운 복음화’의 개념은 2012년 세계 시노드를 마감하면서 최종적인 ‘후속교서’로 매듭지어지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이 한국 교회에 사목적 방법론으로 구체화되리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맞게 ‘새로운 복음화’의 사목적 연구와 실천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복음화’의 개념 속에 이미 각기 다른 교회의 상황에 맞는 ‘복음화’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교구의 ‘새로운 복음화’ 과제는 2031년 맞게 되는 ‘교구설정 200주년’을 향해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2020년을 향한 ‘선교’는 큰 밑바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2020년을 향한 양적 선교를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질적 선교에도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바뀔 말하면 2020년까지 인구 대비 가톨릭신자의 비율을 20%로 성장시키겠다는 양적 선교에 치중하던 사목정책의 방향은 ‘새로운 복음화’ 사목정책을 추진

하면서 질적 복음화 개념으로 크게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복음화에 따른 미래 사목정책은 단순히 신자 수 증가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생활실천을 통한 세상 복음화를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어야만 할 것이다.

‘새로운 복음화’에 입각한 교구 사목정책은 교회 내적 자기쇄신과 교회 외적 세상의 복음화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향을 정책의 큰 틀로서 설정하게 된다. 새로운 복음화에 입각한 사목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찾아나서야 한다. 이 두 가지 과제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기에 교구의 사목정책은 이 두 가지 과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제안하였던 교구 조직의 전환을 통해 본당과 지구가 사목의 중심이 되고 교구가 폭넓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해결해가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기획 부서는 ‘새로운 복음화’에 입각한 교구 정책 방향과 새로운 사목정책을 입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목연구소가 현실진단에 따른 제반 기초 연구작업과 아울러 구체적인 방법 및 표현을 제시하며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제반 사목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복음화’의 과제는 한마디로 “오늘날 새로운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맞서 용감하게 새 길을 내는 것”⁴⁷⁾이다. 교회는 포스트모던시대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식별의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 분야들 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이러한 분야들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그 안에서 직접 하느님을 증언해야 할 요청을 받는다. 따라서 ‘새로운 복음화’에 입각한 사목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사고방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한 행동양식을 지녀야 하며, 인간 역사 안에서 새로운 상황들을 읽고 해석하는 법을 아는 그리스도교적 식별능력이 필수적이다.

47) 「의안 개요」 5항.

시대적 흐름에 대한 통찰과 우리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연구와 더불어 사회과학적인 조사·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적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현실 분석과 상황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복음화’에 따른 교구의 사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사목 과제들을 연구하고 풀어가기 위한 사목 팀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열정을 찾고, 새로운 방법과 표현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며, 지상교회가 몸담고 있는 세상과 소통하고 더불어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교회의 사명인 복음화를 교회 자신과 온 세상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교회문헌

교황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 선교」(1975).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현대의 교리 교육」(1979).

—————, 「평신도 그리스도인」(1988).

—————, 「제삼천년기」(1995).

—————, 「아시아 교회」(1999).

교황 베네딕토 16세, 「언제나 어디서나」(2010).

—————, 「주님의 말씀」(2011).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3차 정기총회 의제 개요」(2011).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2003).

연구보고서

가톨릭신문 창간 80주년 기념 신자의식 조사보고서, 『가톨릭신자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2007.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소공동체 현황과 과제 2010—천주교 서울대교구 여성 구역·반장 신앙생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1.

—————, 『소공동체 현황과 과제 2010—천주교 서울대교구 남성 구역·반장 신앙생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1.

학술논문

곽상호, 「새로운 복음화와 친교로써의 교회 공동체」,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박석천, 「한국천주교회의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연구—신자 재교육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박영대, 「한국 종교 현실의 변화와 사목 과제」, 2009년도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 천주교회의 새복음화 현실과 전망』, 2009. 9. 25.

심상태, 「2000년대의 한국교회」, 『가톨릭 신학과 사상』(1989년 2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 「복음화와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 『사목』, 199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6-22쪽.
- , 「제삼천년기」에 비추어본 민족 복음화와 세계화」, 『사목』, 1996.
- , 「한국 천주교회 복음화 현실과 2천년대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진로」, 『누리와 말씀』(2000년 8호), 인천가톨릭대학교.
- , 『「제삼천년기」와 한국교회의 ‘새 복음화’』,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1998.
- 유흥식,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조건과 특징」, 『복음과 문화』, 1997.
- , 「새로운 복음화와 연대성」, 『복음과 문화』, 1998.
- 이승희, 「복음화, 회심 이론, 소공동체 : 현대 회심 이론을 통해서 본 복음화의 의미와 소공동체의 복음화 과정」,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정 일, 「‘새 복음화’와 토착화」, 『현대 가톨릭 사상』, 2000.
- 조유미, 「한국교회의 ‘새 복음화와 토착화’ 진로모색」,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최현주, 「한국 천주교회 복음화를 증가 요인과 사목 대안」, 2009년도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심포지엄자료집, 『한국 천주교회의 새복음화 현실과 전망』, 2009. 9. 25.
- 황창희, 「포스트모던 사회 안에서의 새로운 복음화와 그리스도교 윤리」, 『누리와 말씀』 18집, 2005.
- , 「현대사회의 새 복음화를 위한 윤리적 제안과 선포」, 『누리와 말씀』 22집, 2007.